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교육의 적절성 검토와 대안 모색

조 성 욱*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Regional Geographic Education in the College of Education Curriculum and Exploration of Alternatives

Sungwook Cho*

요약: 이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교육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와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사범대학에서 지역지리교육의 방향성을 4가지 측면에서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첫째, 지역지리의 목표와 수준 설정 측면에서 지리교사는 지역의 전문가로서 일반인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지역 이해와 지리적 관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지리교육을 위해서는 계통지리 내용을 지역지리 내용으로 교수학적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지리 과목의 지역을 더 세분화하여 사범대학 졸업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지리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은 지역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 강의자에 의한 전체적인 개관과 함께 소집단 또는 개인별 과제 발표 수업이 적절하다. 현재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교육은 부수적인 과목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리교사를 지역지리교육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지리 과목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주요어: 지역지리교육, 계통지리, 지역지리, 목표와 수준, 교수학적 변환, 지역 세분화, 교수-학습 방법

Abstract: In this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regional geography education in the curriculum of geography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ducation was examined, and alternatives were sought. To this goal, the curriculu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universities was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regional geographic education in the College of Education was discussed in four aspects. First, in terms of setting the goal and level of regional geography, geography teachers need to a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and perspective on the region than the general public as a regional expert. Second, for regional geographic education, a didactic transposition is required from systematic geography to regional geography cont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graduates of the College of Education by further subdividing the region of regional geography subjects. Fourth,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for regional geography subjects, it seems appropriate to give a small group or individual assignment presentation classes along with an overall overview by a lecturer who has formed a perspective on the region. Currently, regional geography education exists as an incidental or trace subject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and in order for geography teachers as experts in regional geography,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regional geography subjects and improve their expertise accordingly.

Key words: Regional geographic education, Systematic geography, Regional geography, Goals and level, Didactic transposition, Regional subdividing, Teaching-learning method

*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jbnu.ac.kr

I. 서론

1. 연구 목적

지역지리교육은 지역을 학습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학습 지역의 규모는 학습자의 주변지역,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의 지역 스케일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직접 답사활동이 가능한 지역 범위인 주변지역에 대한 학습, 한국지리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직접 답사활동이 가능하고, 세계지리의 경우는 사실상 직접 답사활동이 어려운 지역규모이다.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면서 학습이 가능한 좁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지역학습’, 직접 답사활동이 어려운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교육내용 중 주로 간접적인 학습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학습을 ‘지역지리교육’으로 정의하고, ‘지역학습’과 ‘지역지리교육’을 구분하여 살펴본다(조성욱, 2019).

직접 답사 활동이 가능한 ‘지역학습’이 직접경험과 활동, 지역 이해의 방법론(답사방법), 지역인식 형성(지역인식의 거점)에 초점이 주어진다면, ‘지역지리교육’은 직접경험과 활동보다는 간접적인 학습을 통하여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초점을 둔다(조성욱, 2019:97). 즉, ‘지역지리교육’은 지역에 대한 지리학의 학문내용을 학습내용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지역을 이해시키는 교육 또는 학습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학생들은 지역지리학습의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지역지리교육의 담당자이다. 즉, 사범대학 학생들은 학습자로서 학습을 통하여 지역지리 내용을 이해하고, 지리교사로서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입장이다. 일차적으로는 학습을 통하여 자신이 지역지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자신이 학습한 지역지리에 관한 지식을 교수학적 변환을 거쳐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입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의 지리교사 양성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역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의 지역지리 교육 수준이 중등학교 현장에서 지리 교사로서 충분한 수준인가? 지리교사의 지역지리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

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교육체계를 분석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추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범대학 지리교사 양성 과정에서 지역지리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지역지리교육에 대한 연구 경향

2000년~2017년 사이 4개 국제학술지에 수록된 지리교육 논문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리교육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이동민, 2017)에서는, 국내 지리교육에서는 지리 학습이나 교육과정 등에 치우친 반면, 국제학술지에서는 지리 교사, 교수 및 평가, 공간정보기술 등 보다 폭넓은 주제들을 망라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역지리교육 관련 논문 226편(1993년~2019년)을 대상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모델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김갑철·노현중, 2019), 5개의 토픽 즉, 전통지역지리, 평가주의, 수업 테크놀로지, 가치교육, 교수방법론이 추출되었다.

지역지리교육에 대한 논의들은 지역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할 것인가, 지역을 보는 관점, 계통지리와 지역지리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적 접근방법은 제한된 시간에 모든 지역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에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 지역별로 백과사전식의 지역 지식 나열의 문제점, 지역 선정 후 지역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의 선정 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Korson and Kusek, 2016). 즉, 지역지리교육은 단순히 지역에 관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접근으로 지역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거대 서사들은 특정한 스케일의 지역에 기원을 두는 부분적이고 상황적인 지식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다층적이고 원거리와 근거리의 동시적 관점과 방법으로 지역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Sidaway, 2013).

지역지리와 계통지리의 관계 설정에서는, 중등 초기에는 계통적 접근방법, 중등 후기에는 지역지리를 통해 지리적 지식을 종합하는 방법(Standish, 2018), 개념과 프로세스를 계통지리 학습 방법으로 학습한 후, 사례지역을

통해 적용하여 지역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방법(Jones, 2014), 계통지리에서 시작하여 지역지리로 전개하는 방법이 두 방법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Gersmehl, 2008)는 논의가 있다. 즉, 기존 논의에서는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학습의 관계에서 계통지리 학습을 먼저 한 다음, 지역지리 학습으로 종합하는 방법을 더 유용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이루어진 지역지리교육 관련 연구들은, 지역지리의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지역지리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지리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지역지리교육에 대한 개념적 논의에 관한 연구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지역지리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로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카스피해 지역, 지중해 지역 등 지역에 관한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한희경, 2011; 김한승·최재영, 2017; 조성욱, 2022). 이 연구들은 지리학의 지역에 대한 지식 중에서 지리교육에서 의미 있는 교육내용을 추출하여, 지역지리지식을 지리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학적 변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지역지리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지리 전공과 비전공 대학생의 비교(김민성, 2020), 글로벌 리더십 함양(최재영, 2019), 지역인식 변화(조성욱, 2012), 오개념 수정(김민성, 2013), 지리교사 양성과정(정인철·이종원, 2005), 지리교사의 전문성(이종원, 2000), 부전공 자격연수 프로그램(이종원, 2007), 교수학적 변환(조성욱, 2009)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지리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함양할 수 있는 능력과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지역지리 교육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유발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들이다.

셋째, 지역지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세계지리 수업 방법(김민성, 2018), 여행기 활용 방법(손명철, 2016), 교사연수(김민성, 2008) 등에 관한 연구

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지리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넷째, 지역지리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 대한 연구로는, 지역지리교육의 개념, 지역 이해, 지역지리의 위상, 다문화교육의 교육적 가치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장의선, 2010; 김병연, 2017; 조성욱,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지리 내용보다는 지역지리교육의 개념을 논의하고, 지역지리교육의 가치 및 방향 정립 등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설정된 지역지리교육과 지역지리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논의점을 추출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리학에서의 이루어지는 지역지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보다는, 지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지리교육에 한정해서 살펴본다.

II. 초중등학교와 사범대학의 지역지리 교육체계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지역지리교육

지리교육은 초등학교 사회과목(3~6학년)의 초등학교 단계, 중학교 사회과목의 중학교 단계, 그리고 고등학교 10학년의 통합사회 과목과 11학년과 12학년의 선택과목 단계(5과목)로 구분할 수 있다(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 일반시민들의 지리학습 수준은 고등학교 10학년의 공통과목 학습 수준 그리고 최대 수준은 2~3학년 단계에 설정된 지리와 선택과목을 모두 이수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학생들의 지리에 관한 지식 정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설정되어 있는 고등학교 과목의 한국지리, 세계지리(이상 일반선택), 여행지리(진로선택) 과목의 수강 수준이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개의 선택과목이 제시되고 있다(표 1).

표 1. 초중등 지리교육체계(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사회 3-6	사회 1, 2	통합사회 1, 2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한국지리 탐구	여행지리

1) 초등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지리교육 체계는 3~4학년과 5~6학년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설정된 지리교육 내용은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4사05], ‘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4사10]의 단원 내용이다.

초등학교 6학년에는 ‘우리나라 국토 여행’[6사01], ‘우리나라 지리 탐구’[6사02],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6사07],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6사09], ‘세계의 자연환경’[6사10], ‘지구촌 사람들’[6사12]의 단원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초등 5~6학년의 교육과정에서는 관련된 11개의 성취기준 중 5개는 한국지리 관련 내용이고, 6개는 세계지리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세계지리 내용은 주제별 내용(지형, 기후, 인구, 지역문제)으로 구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교육내용의 깊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지도학습,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교육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즉, 계통지리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의 지역지리에 대한 1차 완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2) 중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과목에 설정된 지리 영역의 내용은 12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통지리(4개)와 지역지리(8개)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통지리 단원(4개)은 한국지리가 2개 단원, 세계지리가 2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지리 단원(8개)에서는 우리나라를 3개 지역(중부, 남부, 북부)으로 구분하고, 세계는 5개 지역(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2).

3)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정은 공통과정(10학년)과 선택과정(11~12학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통과목인 통합사회(1, 2) 과목의 교육내용 중 지리교육 내용은 ‘자연환경과 인간’[10통사1-03], ‘문화와 다양성’[10통사1-04], ‘생활공간과 사회’[10통사1-05], ‘세계화와 평화’[10통사2-04],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10통사2-05]의 5개 단원에 배치되어 있다. 모두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택과정에서 지리 과목으로 5개 과목이 제시되고 있는데(표 3), 모든 과목이 주제별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2. 중학교 사회과목의 지리교육 내용 단원(2022 개정 교육과정)

지역규모	계통지리 단원(4개)	지역지리 단원(8개)
한국	(7)*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곳 (8)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9) 중부지역 (10) 남부지역 (11) 북부지역
세계	(1) 세계화 시대, 지리의 힘 (12) 지속가능한 세계와 글로벌 시민	(2) 아시아 (3) 유럽 (4) 아프리카 (5) 아메리카 (6) 오세아니아와 극지방

* 교육과정에서의 단원 배정 순서.

표 3. 고등학교 선택과목별 교육내용 구성(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명	단원구성
세계시민과 지리 (일반선택)	(1) 세계시민, 세계화와 지역 이해 (2) 모자이크 세계,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 (3) 네트워크 세계, 세계의 인구와 경제 공간 (4) 지속가능한 세계, 세계의 환경 문제와 평화
한국지리 탐구 (진로선택)	(1) 공간정보와 지리 탐구 (2) 생활 속 지리 탐구 (3)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4) 환경과 지속가능성 탐구 (5)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진로선택)	(1) 삶의 공간, 도시 (2) 변화하는 도시 (3)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4) 도시의 미래
여행지리 (융합선택)	(1)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2) 문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3)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4) 미래 사회와 여행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융합선택)	(1) 인간과 기후변화 (2) 기후정의와 지역문제 (3)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생태전환 (4) 공존의 세계와 생태시민

2.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과목 구성

1) 사범대학의 지역지리 교육과정

지리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생이 일반인에 비해서 지역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교과과정을 살펴본다. 사범대학의 17개 지리교육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지역지리’ 과목만을 추출하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여부, 지역구분 방법을 비교해 본다. 사범대학에서 지역지리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례는 드물고(경상대, 고려대), 대부분 선택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개설하고 있는 지역지리 과목은 대학에 따라 2개~11개까지 다양한데, 학교당 평균 6개(18학점)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사범대학 학생들은 전공과목 51학점(17과목)과 교직 22학점으로 총 73학점을 이수해야 지리교사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중 전공과목 51학점은 필수과목 21학점(7과목)과 선택과목 30학점(10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지역지리 과목은 대부분 선택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의 졸업기준학점은 140학점이기 때문에(00대의 경우 2020학번까지는 150학점, 2021학번부터는 140학점), 교사자격증을 위한 73학점은 총 140학점의 52%를 차지한다. 이외 학점은 교양과목(최소 30학점~최대 42학점)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고, 선택 학점으로 전공심화(21학점), 복수전공(51학점), 부전공(21학점)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따라서 총 140학점 중 대학 졸업자격 및 지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학점은 최소 103학점(전공 73학점 + 교양 30학점, 73.6%)이고, 나머지 37학점은 전공심화, 복수전공, 부전공 그리고 일반선택 과목이나 교양과목의 수강으로 채우게 된다.

각 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과목을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강원대(11개 과목)이다(표 4). 그리고 대구가톨릭대와 대구대는 과목명에서 지역구분 명칭을 과목명으로 제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지역지리 과목은 지역 스케일에 따라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과목을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지리의 개론과목이다. 그리고 한국지리 지역 규모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과목으로는 ‘호남지역지리’(전북대), ‘부산권 지역연

구’(부산대), ‘향토지리 조사’(제주대), ‘북한지리’(동국대), ‘서울지역연구’(이화여대) 등의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또한 실습이나 지리 조사 등의 답사 과목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제주대,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교원대)도 있다.

세계지역 과목 개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3개 지역을 메인(main) 지역으로 설정하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추가하여 전 세계를 총 5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계지역 구분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경우, 아시아 지역을 1개의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은 9개 대학(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고려대, 교원대, 부산대, 서울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이며, 전북대는 아시아 지역을 2개 과목(동부 및 동남아시아, 서부 및 남부아시아)으로 세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를 다른 지역과 연합해서 과목을 설정한 경우는 아시아-오세아니아(공주대, 제주대), 아시아-아프리카(이화여대) 등이 있다.

유럽 지역의 경우, 유럽을 독자적인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은 7개 대학(강원대, 고려대, 교원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이며, 유럽을 다른 지역과 연합해서 과목을 설정한 경우는 유럽-아프리카(경북대, 공주대, 부산대, 전남대), 유럽-아메리카(경상대, 이화여대, 제주대) 등의 사례가 있다.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아메리카를 독자적인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은 10개 대학(강원대, 고려대, 공주대, 교원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이며, 아메리카를 다른 지역과 연합해서 과목을 설정한 경우는 아메리카-오세아니아(경북대), 아메리카-유럽(경상대, 이화여대, 제주대) 등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각각 독자적인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은 없으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오세아니아를 하나의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례(강원대,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 아프리카-유럽(공주대, 부산대, 전남대), 아프리카-중동(제주대), 아프리카-아시아(이화여대)를 묶어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오세아니아-아메리카(경북대), 오세아니아-아시아(공주대, 제주대, 전남대)의 사례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지역명이 들어가는 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대학(고려대, 교원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부산대)도 있는데, 세계지리

표 4. 사범대학 지역지리 과목 개설 현황(17개 사범대학)

대학별	스케일별 과목 구분		과목수
	한국 규모	세계 규모	
강원대	향토지리실습 북한지리, 한국지리 한국지역지리	세계지리, 중국지리, 러시아지리, 아호지리, 아메리카지리, 유럽지리, 아시아지리(7과목)	11
경북대	한국지리	세계지리, 아시아지리, 아메리카-오세아니아지리 지역지리교육, 유럽-아프리카지리(5)	6
경상대	한국지리 지역지리연구(전필)	세계지리, 아시아지리, 유럽-아메리카지리, 아프리카-오세아니아지리(4)	6
고려대	한국지리총론(필수) 국토교육론, 한국지리각론	세계지리, 지역지리, 아시아지리, 아메리카지리, 유럽지리(5)	8
공주대	한국지리	세계지리 및 실습, 아메리카지역지리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지리, 유럽-아프리카지역지리(4)	5
교원대	한국지리특강 및 실습	세계지리, 제3세계의 이해, 선진지역의 이해, 열대지역의 이해, 아시아지리, 유럽지리, 아메리카지리(7)	8
대구대	한국지리 중부지역의이해 남부지역의이해 도서지역의이해	세계지리, 세계화와 지역지리, 세계지역의 이해(3)	7
대구 가톨릭	한국지리 한국지리아외실습	세계지리,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이해(2)	4
동국대	한국지리	세계지리(1)	2
부산대	한국지리 부산권지역연구	세계지리, 아시아지리, 아메리카지리, 유럽-아프리카(4)	6
서울대	한국지리	세계지리, 유럽지역연구, 아프리카-오세아니아 지역연구 아시아 지역연구, 아메리카 지역연구(5)	6
이화 여대	국토의 이해 서울지역연구	세계지리와 세계여행 1: 유럽과 아메리카 세계지리와 세계여행 2: 아시아와 아프리카(2)	4
제주대	한국지리 향토지리조사	유럽-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아프리카-중동(3)	5
전남대	한국지리	세계지리교육, 여행지리교육, 유럽-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교육, 아메리카지역교육(5)	6
전북대	한국지리 호남지역지리	세계지리, 동부 및 동남아시아, 유럽지역지리 서부 및 남부 아시아지역, 아메리카지역연구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지역(6)	8
충북대	한국지리	아시아지리, 아메리카지리, 아프리카·오세아니아지리, 유럽지리(4)	5
가톨릭관동	한국지리 지리조사현장연구	세계지리, 아시아지역연구, 유럽지역연구, 아프리카호주지역연구, 아메리카지역연구(5)	7
17개 대학	32과목 (평균: 1.88)	72과목 (평균: 4.23)	평균: 6.12

자료: 각 대학교 홈페이지(학부 학사과정-교과과정).

과목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지역은 주요 지역으로 과목이 설정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각각 별도 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는 없고, 아프리

카-오세아니아 지역을 묶어서 개설하는 경우와 다른 대륙과 연결하여 제시되고 있다(표 5).

2022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육과정 지역지리 단위에서는 세계를 5개 지역(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표 5. 대학별 세계지역 과목 제시 방법

지역별	지역 구분 방법
아시아	아시아/동부+동남 아시아/서부+남부 아시아/아시아-오세아니아/아시아-아프리카
유럽	유럽/유럽-아프리카/유럽-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아메리카-유럽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메리카/오세아니아-아시아
아프리카	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프리카-유럽/아프리카-아시아/아프리카-중동

오세아니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3개 지역(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오히려 대학의 교육과정이 지역 스케일 측면에서 더 넓은 구분법을 사용하고 있다.

2) 지역지리 과목 수강 현황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지리교육에 의해서 지역에 관한 지식 측면에서 중등학생과 지리교육과 대학생의 차이, 다른 과목 교사와 지리과 교사의 차이 그리고 일반인과 지리교사의 차이 등의 차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지역지리 교육내용은 지역지리 과목에 의해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통지리 과목 수강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역에 관한 지식을 지역지리 과목 학습을 통해서 총합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지리 과목 수강을 통해서만 지역지리에 관한 지식이 함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지리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졸업 요건으로 교양과목(최소 30학점)과 전공과목 51학점, 교직 22학점으로 총 103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학점은 140학점이다. 00 대학교 학생들을 사례로 살펴보면(2021학년부터 졸업학점 140학점), 전공과목의 경우 전공필수 21학점 이수는 모두 동일하고, 전공선택에서는 17과목(51학점)~19과목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6). 2024년 2월 졸업생(150학점) 6명의 사례 학생 중 5명은 다른 과목의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지 않고, 지리과 전공심화(21학점)를 선택한 사례(전공 51학점 + 전공심화 21학점 = 72학점)이고, 1명(6번)은 다른 과목을 복수전공(전공 51학점 + 타전공 51학점 = 102학점)한 사례이다.

교직과목은 교육법에서 정한 22학점을 동일하게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교양(30~42학점)과 일반선택 과목 수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복수전공을 하지 않는

표 6. 2024년 2월 졸업생(졸업학점 150학점)의 지역지리 과목 이수 현황

학생별	A	B	C	D	E	F**
전공(51)	78 (21+57)*	72 (21+51)	78 (21+57)	75 (21+54)	72 (21+51)	51 (21+30)
교직(22)	22	22	22	22	22	22
교양(30)	36	35	40	42	42	31
일반선택	15	21	12	12	18	53(복전)
합계	151	150	152	151	154	157
지역지리	18학점	18학점	18학점	18학점	15학점	3학점
과목명	동부동남아시아 세계지리 아메리카 아프오세아니아 한국지리 호남지역	동부동남아시아 세계지리 유럽 아프오세아니아 한국지리 호남지역	동부동남아시아 세계지리 유럽 아프오세아니아 한국지리 호남지역	동부동남아시아 세계지리 유럽 아프오세아니아 한국지리 호남지역	동부동남아시아 세계지리 유럽 아프오세아니아 한국지리 호남지역	세계지리

* (전공필수 + 전공선택) 학점 수.

** 복수전공 학생.

5명의 경우 교양과목에서 평균 39학점을 수강하였으며 (최소 30학점), 일반선택의 경우 평균 15.6학점을 수강하였다. 결국 교양과목 초과 9학점과 일반선택 15.6학점 즉, 24.6학점(=9.0+15.6)은 전공선택과목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더 많은 지역지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지리 과목 수강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선택 과목으로 지역지리 과목을 8개 제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중 평균 6개 과목(18학점)을 수강하고 있다. 이 중 ‘아메리카 지역연구’와 ‘유럽 지역지리’ 과목은 동일 시간대에 개설된 관계로 둘 중의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루어졌으며, ‘서부 및 남부아시아 지역’ 과목은 개설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지리과목(6개)을 최대한 수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단, 복수전공 학생은 1과목만 이수).

그리고 졸업학점이 150학점에 140학점으로 10학점이 축소된 이후의 변화(2021학년부터)를 살펴보면(표 7), 전공필수 과목(21학점), 교직과목(22학점) 그리고 교양과목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전공선택 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전공선택 과목인 지역지리 과목의 수강이 평균 2과목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소학점보다 많은 학점의 수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과목과 일반선택 과목 수강을 지역지리 과목으로 유인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임용시험에서 지역지리 출제 문항

지리교사 임용시험의 세계 지역지리 관련 문항(2015~2026년)은 총 2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8년도에 6문제로 최고로 많았고, 2020년도 이후에는 매년 1문제 정도로 출제되고 있다(표 8, 9).

임용시험에 출제된 세계 지역지리 문항은, 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서남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서부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북미보다는 중남미 문제가 많다. 즉, 임용시험 문제를 고려한다면 서남 아시아, 서부 아프리카, 카리브해,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III. 사범대학 지역지리교육의 방향 모색

여기에서는 앞의 분석을 기반으로 지리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지역지리교육의 방향을 지역지리 교육의 목표와 수준 설정,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과목의 상호관계, 학습 지역의 세분화 문제, 교수-학습 방법 등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탐색해 본다.

1. 지역지리교육의 목표와 수준

사범대학에서 지역지리교육의 목표 설정은 지역에 대한 지식의 양과 질, 지역을 보는 관점 형성의 기준, 과목 개설, 지역에 대한 접근방법, 계통지리 지식을 지역지리

표 7. 2026년 2월 졸업생(졸업학점 140학점 기준)의 지역지리 과목 이수 현황

학생별	G	H	I	J	K	L
전공(51)*	72 (21+51)**	72 (21+51)	72 (21+51)	72 (21+51)	72 (21+51)	75 (21+54)
교직(22)	22	22	22	22	22	22
교양(30)	40	38	40	38	40	40
일반선택	6	11	7	8	6	3
합계	140	143	141	140	140	140
지역지리	12학점	9학점	15학점	12학점	12학점	15학점
과목명	세계지리 서부남부아시아 한국지리 호남지역	세계지리 서부남부아시아 한국지리	세계지리 서부남부아시아 유럽 한국지리 호남지역	세계지리 서부남부아시아 유럽 한국지리	세계지리 서부남부아시아 유럽 한국지리	세계지리 서부남부아시아 아프오세아니아 한국지리 호남지역

* 최소 학점 수

** (전공필수 + 전공선택) 학점 수, 지역지리 과목은 <전공선택> 과목으로 설정됨.

표 8. 연도별 임용시험 세계 지역지리 문항의 지역과 분야(2015~2026년)

연도별	지 역	분 야
2015	남아메리카 동유럽	A5. 남아메리카 파타고니아의 식생대 분포 A10. 동부유럽(우크라이나)
2016	동아시아	A7.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분쟁지역)
2017	서남아시아 남아메리카	A4. 서남아시아(쿠르드족) A14. 남아메리카(적도 부근 기후)
2018	오세아니아 중남미 남부아시아 서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서아프리카	A3. 뉴질랜드의 자연환경과 산업 A4. 카리브해 국가(쿠바) A8. 남부아시아의 언어 A11. 서아프리카의 기후 B3. 서남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 B8. 서아프리카 사막화(부르키나파소)
2019	동남아시아 서아프리카	A3.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자연, 역사, 경제 B4.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2020	남부아시아	B10. 남부아시아의 몬순지역
2021	서남아시아	A8. 서남아시아의 국가, 종교, 인구구성 변화
2022	오세아니아	A9.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형
2023	중남미	A3. 카리브해 지역의 언어와 문화
2024	서남아시아	A8.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지역갈등과 분쟁
2025	유럽	B3. 유럽의 지역갈등
2026	동남아시아	A8. 동남아시아의 종교와 분쟁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중등교사임용시험).

표 9. 임용시험 세계 지역지리 문항의 지역 분포(2015~2026년)

지역별	지역 세분(문항수)	문항수(20)
아시아 지역	동부(1), 서남(4), 동남아(2), 남부(2)	9
유럽 지역	유럽(1), 동부(1)	2
아메리카 지역	남아메리카(1), 적도(1), 카리브해(2)	4
아프리카 지역	서아프리카(3)	3
오세아니아 지역	뉴질랜드(1), 오스트레일리아(1)	2

표 10. 중등 이상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과목 수강 기회(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

학교급별	과목명	과목수
중학교	사회 1, 2	1과목
고등학교	통합 사회 1, 2	1과목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5과목
00 대학교	호남지역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부 및 동남아시아, 서부 및 남부아시아지역, 아메리카지역연구, 유럽지역지리,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지역	8과목 (24학점)

지식으로 재구성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지역지리교육의 목표와 수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었을 때, 그에 맞는 교육 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도 강구될 수 있다. 지역지리교육의 목표 설정은 학문적 기준보다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개인적 필요성, 사회에서의 활용성, 교육시스템에서의 체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목표 달성의 단계를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지리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의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공통과정만을 이수한 수준과 선택과목까지 이수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리교육과 졸업자는 전문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표 10).

지역지리교육 전문가로서 예비 지리교사는 지역에 대한 지식의 양과 질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어 있을 때, 중등학교 학생들이나 일반인과는 다른 수준의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계통지리를 기둥으로 하고, 지역지리로 종합하는 교육과정이다.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지리 과목과 계통지리 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지역에 관한 지식과 관점 형성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표 11).

지리교육은 학생들이 사회현상을 지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지역의 의미를 인식하고 깊게 이해하는 지역 이해의 종합적 관점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초중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깊고 종합적인 수준으로 구성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교육의 목표 설정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일상생활이나 전문 직업생활을 할 때 과연 지리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한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리과목이 담당한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지역을 구분하여 나열적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지리과목은 지명이나 지역에 관한 지식을 암기하는 과목이라는 오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지역을 소홀히 하고 사회현상만을 강조하거나, 계통지리만으로 접근했을 때, 중등학교에서 지리과목이라기 보다는 사회과목으로서 인식이 더 커져서 지리과목의 위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023년 전북 장수군에서 3.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2023.7.29. 규모 3.5; 2023.12.23. 규모 3.0). 그러나 중앙대책본부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에서 ‘전남 장

수군’이라고 했다가 다시 정정해서 ‘전북 장수군’으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지역지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리교육 소홀이 원인일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실수는 지리학보다는 지리교육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리 지식의 정확도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으로 나누어 학습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러한 지역구분과 학습은 상호 간의 의사소통에 편리성을 부여한다. 지리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지역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지리적 의사소통은 계통지리보다 지역지리의 역할이 더 크다. 지리교육은 지역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일상적인 사회문제를 지리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지리적 관점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사고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지리교육의 역할이다.

또한 지리교사는 사범대학에서 학습한 지리학의 내용을 교수학적 변환을 거쳐 지리교육 내용으로 변환시켜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관한 지리적 지식을 북부, 중부, 남부 지방과 같은 큰 지역구분과 도단위 행정구역으로 변환하여 위치와 지역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지역 규모에서는 일반인의 수준에서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인식한다면, 전문가로서의 지리교사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역구분과 지역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리교사는 일반인의 수준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지역 지식과 지역을 세분한 전문적인 지역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관점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1. 학교급별 지역지리 교육의 목표와 수준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대학(지리교육과)
사회 1, 2	통합사회	계통지리 지식(지식), 지역지리 지식(지식)
	선택과목	지역에 대한 관점 형성(질적 차이), 교수학적 변환 능력(교육 능력)
일반인 수준		전문가 수준

따라서 예비 지리교사를 기준으로 지역지리교육의 수준과 목표를 설정한다면 첫째, 초·중·등 지리교육을 마친 일반인들이 지역에 대한 상호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지역의 인식과 이해, 교수학적 변환 능력). 둘째, 지리교사는 지역 지리 전문가로서 일반인에 비해서 지역에 관한 지식의 양과 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에 관한 관점 형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2. 지리교육에서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과목의 상호 관계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계통지리 과목 중심의 교과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계통지리와 지역지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세계지역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분절된 주제나 사례만을 학습할 경우 파편화된 지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는데, 지역지리교육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틀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김민성, 2019:429). 또한 계통지리만을 강조할 경우 지리의 파편화와 지리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지리와의 보완적 관계를 통해서 계통지리에 의한 지식의 확장과 함께 지역지리에 의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조철기·김현미, 2019:473).

지역지리 과목의 위치는 첫째, 계통지리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지역지리 과목을 통해 재구성하는 방법, 둘째, 지역지리 과목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계통지리 과목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방법, 셋째, 교육과정에서는 계통지리 과목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학습자(예비 지리교사) 스스로 지역으로 통합 또는 지역별로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것은 지역지리 과목

의 선후 및 학년 배치와 관련된다. 계통지리 과목 학습에서도 다양한 사례로서 지역지리 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지리교육과의 교육에서는 계통지리 중심의 분야별 깊이 있는 학습이 최종적으로는 지역지리로 종합되어야 한다(그림 1).

사범대학 교육과정은 해당 학문의 내용(58.30%)과 교수학적 변환 과목(지리교과교육 과목, 11.10%), 일반교육학 과목(30.60%)으로 이루어지고,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당 학문의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이다(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조성욱, 2009:213). 예비 지리교사의 지리 지식 구성은 과목 개설과 개설된 과목의 필수 및 선택 여부, 필요 학점 여부에 따라 코스가 설계된다.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학생들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계통지리 과목을 핵심(필수과목)으로 이수하고, 지역지리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즉, 계통지리 과목이 주(主)를 이루고(필수과목), 지역지리 과목은 종(從, 선택과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모학문인 지리학의 학문체계가 계통지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 내용학 분야의 학습은 계통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교육에서는 지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좁고 깊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관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통지리나 지역지리만이 아닌 계통지리와 지역지리의 적절한 배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시될 때는 학문의 틀보다는 지역의 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계통지리에 의한 주제별 접근의 최종 목표는 지역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각 분야의 지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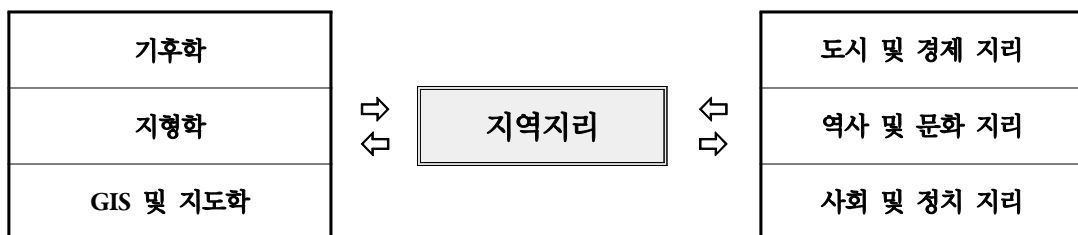


그림 1.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과목의 관계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하는 지역지리교육은 지리교육의 최종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학의 학문에 따라서 계통지리에 중점이 주어지고, 지역지리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 그대로 지리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지리교육에서는 지식의 탐구과정은 계통지리 접근방법을 따르고, 최종 목표는 지역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지리교육에서의 지리 지식은 계통지리에서 지역지리로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재구성되어야 한다.

3. 지역지리 과목의 지역 세분화 문제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과목 설정은 한국 규모와 세계 규모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 규모에서는 ‘한국지리’라는 과목명이 공통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외에 ‘호남지역지리’, ‘부산권지역연구’, ‘향토지리조사’, ‘서울지역연구’ 등과 같이 대학에 따라 지역성을 반영한 과목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 규모에서는 공통적으로 ‘세계지리’ 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세계를 구분하는 방법에서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3개 대륙규모 지역은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선택적 또는 다른 대륙규모 지역에 부가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시아 지역은 세분하여 설정하는 경우(아시아, 동부 및 동남아시아, 서부 및 남부아시아, 중동)가 있다.

이중 특히 세계지역 학습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역을 세분하여 학습해야 하는가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수준과 지리 전공자 수준의 2개 차원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는 지역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고등학교 과목은 계통지리 체계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으로 일반인의 세계지역에 대한 이해 수준은 5개 지역 구분(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의 지역구분은 3개 지역(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을 주요 지역으로 하고,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를 부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범대학에서 지역지리 전문가로서 지리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등 교육과정보다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수준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 지역을 세분화하여 학습하는 것은 지역지리교육의 전문가로서 세계 지역지리의 이해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무한대로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고, 지역 세분화가 전문성을 담보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현재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역지리 과목의 지역 세분화 수준은 지역 전문가로서 지리교사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실제 강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전문성 있는 지역지리 과목의 설정을 추가하여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예비 지리교사를 지역 전문가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대안은 기존의 3개 대륙 규모의 지역구분이 아니라 5개 대륙 규모의 지역구분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이차적으로는 5개 대륙 규모의 지역구분을 지역 차이를 기준으로 세분화한 11개 지역의 과목 설정 방법이다(표 12). 그러나 현재 사범대학의 세계 지역지리 과목의 개설 평균이 4.23과목 임을 고려했을 때(최대 7개 과목),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리교사를 지역지리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수와

표 12. 사범대학에서 세계지역 세분화 대안

현재 주요 과목	1차 구분(기본)	2차 구분(세분)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동부, 동남·남부, 서부·중앙(3개 지역)
	아메리카	북미, 중남미(2개 지역)
	유럽	북서부, 남동부(2개 지역)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네시아 지역(2개 지역)
	아프리카	사하라 이북, 사하라 이남(2개 지역)
주요 3개 지역	5개 지역	11개 지역

관계없이 과목을 개설하여 학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

4. 지역지리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계통지리 과목과 지역지리 과목은 교육내용이나 구성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 방법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계통지리 과목과 지역지리 과목의 수업 방법에서의 차이, 학생들의 선호하는 수업 방법, 강의자가 선호하는 수업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 지역지리의 해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성찰과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김갑철, 2019:451).

지역지리 과목은 계통지리 과목의 학습내용을 기반으로 주제별 접근방법을 지역별 접근방법으로 전환해서 지리적 지식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상적인 방법은 계통지리 과목이 지역지리 과목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지역지리 과목의 수업을 통해서 궁금증과 흥미를 느끼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다시 계통적 접근방법으로 전환하는 순환적 방법이다. 지역지리 과목의 수업 방법에서 고려할 사항은, 첫째, 지역을 중심으로 계통적인 내용(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전공자와 강의자를 찾기 어렵다. 둘째, 계통지리 과목에 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식이 총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내용이 방대하다. 셋째, 학습의 범위와 학습의 깊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강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은 지역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인 강의자의 안목과 식견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지리 과목은 내용이 방대하여 많은 시수가 확보되어야 하고, 강의자가 특정 지역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경우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는 한계가 있다. 즉, 지역지리 과목의 교육내용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정된 강의 시간에 해당 지역을 모두 학습하고 거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계통지리 과목은 학문적 틀에 의해서 일정한 교수요목(syllabus)을 구성하기 쉬운 반면, 지역지리 과목은 일정한 틀보다는 강의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강의계획서를 구성할 수 있다. 결국 교육의 양적 측면

에서는 지역지리 과목의 수업 방법은 강의식보다는 개인별 또는 소집단별 발표식 학습이 유리하며, 이 방법을 통해서 학습자의 관심과 학습의 깊이 즉 질적인 측면을 조정하는 방법이 유용성과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성이 높다.

지역지리 과목의 학습에서 이상적인 방법은 전문적인 강의자에 의해서 지역의 전체적인 개괄과 지역에 관한 관점 등을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이후에 소집단 협동학습 또는 각 개인별 분담 과제의 발표 형식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륙별 지역구분 내에서 국가별로 계통지리 내용을 종합하여 파악하는 국가별 접근하는 방법은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또는 의사결정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가 수가 많고 다양할 경우 거점국가를 먼저 학습하고, 시간에 따라서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조성욱, 2005). 특히 학생 중심의 탐구식 수업은 학생들이 계통지리에서 학습한 내용을 지역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역지리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지역지리교육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직접 답사가 가능한 ‘지역학습’과 직접 답사보다는 지역에 대한 지식의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역지리교육’으로 구분하고, 이중 지역지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초중등학교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사범대학에서 지역지리교육의 방향성을 4가지 측면에서 논의했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지도학습,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교육내용이 모두 설정되어 있어서 깊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계통지리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 및 세계 지역지리에 대한 학습이 1차 완성되는 체계이다. 중학교 사회과목에서는 지리 영역의 내용이 12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통지리(4개)와 지역지리(8개) 단원의 혼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통과정(10학년)과 선택과정(11~12학년)

모두 계통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지리 과목을 평균 6.12과목(18학점~21학점) 수준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공필수가 아니라 전공선택으로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지역 과목 설정에서 공통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3개 지역을 메인(main)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외에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추가하여 전 세계를 총 5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용시험에서 출제된 지역지리 문항은 아시아 중에서는 서남 아시아, 아프리카는 서부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중남미 지역에 관한 문제의 비중이 높다.

셋째, 사범대학 지역지리교육의 방향성을 지역지리교육의 목표와 수준,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과목의 관계, 대학에서 지역지리 과목의 세분화 방법, 교수·학습 방법의 4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 먼저 지역지리교육의 목표와 수준 설정에서 지리교사는 지역지리교육의 전문가로서 일반인에 비해 지역 세분화에 의한 더 높은 수준의 지역 지식 학습이 필요하고, 일반인들이 지역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리교육에서 계통지리 과목이 주(主)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통지리 내용을 지역지리로 교수학적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지리 과목의 지역 세분화 측면에서는 지리교사들의 지역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더 지역을 세분화한 전문적인 지역지리교육이 필요한데, 대안으로 11개 지역으로의 세분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지리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지역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 강의자에 의한 전체적인 개관과 함께 소집단 또는 개인별 과제 발표 수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교육의 수준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는 지역지리 관련 과목의 개설이다. 현재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교육은 부수적인 과목으로 또는 흔적 과목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리교사를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지리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지리 과목의 세분화 설정과 함께 그에 따른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지리교육이 특히 세계지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본 틀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 김갑철, 2019, “영국 지역지리 교육과정: ‘강한’ 교육에서 ‘약한’ 교육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지리교육」, 서울: 푸른길, 432-456.
- 김갑철·노현중, 2019,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지역지리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사회과교육, 58(4), 49-68.
- 김민성, 2008, “미국 세계지리 과목의 교사연수: 텍사스주 TALWG(Teaching and Learning World Geography) 워크숍”,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3), 281-290.
- 김민성, 2013, “교사들이 인지하는 고등학생들의 한국지리 오개념”, 대한지리학회지, 48(3), 482-496.
- 김민성, 2018, “미국 대학의 세계지리 수업과 한국 지리교육 과정에의 시사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4), 575-590.
- 김민성, 2019, “미국 대학의 세계지리 수업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지리교육」, 서울: 푸른길, 416-431.
- 김민성, 2020, “지리에 대한 인식 조사: 지리 전공과 비전공 대학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1), 33-47.
- 김병연, 2017, “한국지리에서 ‘지역지리’의 위상에 대한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4), 679-693.
- 김한승·최재영, 2017, “지리교육에서 카스피해 자원 분쟁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6(2), 101-112.
- 손명철, 2016, “세계지리 수업에서 여행기를 활용한 정의적 영역의 보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730-744.
- 이동민, 2017, “세계 지리교육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6(3), 355-368.
- 이종원, 2000, “지리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사회과교육, 33, 379-400.
- 이종원, 2007, “공통사회 부전공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현황과 분석”, 사회과교육, 46(4), 5-24.
- 장의선, 2010, “세계지리의 다문화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49(2), 185-201.
- 정인철·이종원, 2005, “텍사스주 지리교사 양정과정과 성공적인 지리교사의 자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53-63.
- 조성욱, 2005, “거점국가 중심의 세계지리 교육내용 구성방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3), 349-362.

- 조성욱, 2009, “지리 지식의 유형별 교수학적 변환 방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3), 211-224.
- 조성욱, 2012, “지리 과목 수업을 통한 지역 인식 변화 특성 - ‘유럽지리’ 강의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 49-61.
- 조성욱, 2018, “지역지리교육의 개념 논의와 방향 모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4), 542-556.
- 조성욱, 2019, “지역지리교육에서 논의점과 교육과정 구성 방법”, 한국지역지리학회,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지리교육」, 서울: 푸른길, 94-112.
- 조성욱, 2022, “지리교육에서 7개 스칸 국가 학습을 통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2), 33-50.
- 조철기·김현미, 2019, “오스트레일리아 지리교육과정과 지역지리의 위치”, 한국지역지리학회,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지리교육」, 서울: 푸른길, 457-475.
- 최재영, 2019, “세계지리 수업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함양 활동”,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1), 87-99.
- 한희경, 2011, “비판적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세계지리 내용의 재구성 방안 -사고의 매개로서 “경제 지역”과 지중해 지역의 사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123-141.
- Gersmehl, P., 2008, *Teaching Geography*(2nd edn), Guilford Press, New York.
- Jones, M. C., 2014, Seeking synthesis: an integration exercise for teaching regional geography, *The Geography Teacher*, 11(1), 25-28.
- Korson, C. and Kusek, W., 2016, The comparison of s thematic versus regional approach to teaching a world geography course, *Journal of Geography*, 115(4), 159-168.
- Sidaway, J. D., 2013, Geography, globalization, and the problematic of area stud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3(4), 984-1002.
- Standish, A., 2018, The Place of Regional Geography, In Jones, M and Lambert, D.(eds.), *Debates in Geography Education*(second edition), Routledge, London.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s://www.kice.re.kr>(중등교사임용 시험)
- 각 대학교 홈페이지(17개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학부 학사과정-교과과정], 2025년 기준.

접 수 일 : 2026. 04. 20

수 정 일 : 2026. 05. 22

게재확정일 : 2026. 05. 29

교신: 조성욱,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Sungwook Cho, chossww@jbnu.ac.kr